

미래에셋증권 (006800)

2026.05.12 | 기업분석_2026년 1분기 컨퍼런스 콜

Analyst 고연수 yeonsookoh@hanafn.com

영업상황 및 경영목표

<2026년 1분기 실적 요약>

- 연결 세전이익 1조 3,576억원(YoY +292.3%, QoQ +77.1%), 지배주주순이익 9,962억원(YoY +285.0%, QoQ +72.6%) 기록
- 연결 지배주주 자기자본 14.1조원(YoY +16.3%, QoQ +6.4%), 연환산 연결 ROE 29.1%(YoY +20.5%p, QoQ +11.3%p) 기록
- 2026년 1분기에도 BK, WM, 해외법인, PI 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에서 지난 분기 최고 기록을 상회하는 성과 기록
- 해외법인에서는 세후 기준 연환산 ROE 14% 달성하며 최대 실적 기록
- PI 주요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약 8,040억원을 시현
- 차별화된 사업구조 및 성장 잠재력:**
 - 단기간 구축이 어렵고,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WM과 연금 사업이 최근 머니무브 흐름 속에서 성장속도 가속화
 -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해외법인 수익이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급격한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음
 - 국내외 혁신기업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축해 안정적 수익원으로 자리잡는 중
 - 인도,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EM에 이어 홍콩, 미국 등에서도 글로벌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글로벌 WM 비즈 전략 추진

<중장기 사업전략 설명>

1. WM과 연금 비즈니스

- 고객자산 증가는 수익성 확대와 직결되며, 당사 수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
- 해외자산 포함한 국내외 총 고객자산은 25년말 602조원 → 올해 1분기말 기준 660조원, 현재 기준 776조원으로 작년말대비 174조원 증가
- 이는 25년 한 해 증가액인 120조원 및, 24년 증가액 113조원을 초과달성한 성과
- 최근 3년간 국내외 총 고객자산은 연평균 18% 수준으로 성장, 수익성 역시 자산 증가에 비례해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
- 금융자산별 차이는 있으나 평균 보수율 약 60bp 수준의 수수료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 중
- 내년 국내외 WM 및 연금 순영업수익은 작년보다 0.6조원 증가한 4.2조원 시작으로, 2030년에는 8.2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
- 당사 실적의 하단을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안정적 수익 기반으로 기능할 것
- 연금자산 역시 꾸준한 성장세 이어가는 중. 연금 자산은 지난해말 57.8조원 > 3월말 기준 6.5조원 증가한 64.3조원 기록. 이는 지난 한 해 증가분의 약 43% 수준
- 현재 기준으로는 74조원 돌파
- 1분기 증가분은 당사 연간 순증금액 목표의 절반을 이미 달성한 수치이기도 하며, 특히 고객이 직접 사업자를 선택하는 DC, IRP 합산 적립금은 1분기말 기준 36.8조원 기록. 적립금 규모 기준 전금융권 1위

• 2. 해외법인

-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해외법인에서 창출되는 수익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전략 추진
- 26년 1분기 해외법인에서는 세전이익 2,432억원 기록. 이는 해외법인 사상 최대 실적, 세후 기준 연환산 ROE 14%
- 인도,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WM 자산은 1분기말 기준 78조원으로 자산/수익도 점진적으로 상승
- 뉴욕, 홍콩 등 선진시장에서는 다각화된 사업부문에서의 경상이익과 함께 투자자산 성과인식 이어졌음
- 특히 1분기 홍콩법인의 세전이익은 813억원으로 지난해 홍콩 법인의 연간 세전이익 863억원에 이미 근접한 수준
- 뉴욕법인도 올해 1분기말 최대 실적 기록한 작년의 약 40% 수준인 830억원 달성
- 홍콩법인은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 확보, 오는 6월 국내 증권사 최초로 글로벌 MTS 출시를 준비 중
- 이를 통해 글로벌 리테일 접점을 확대하고, 기존 이머징 시장 중심의 WM 전략을 홍콩을 포함한 주요 국가로 확장해나갈 계획

• 3. 국내외 혁신기업 투자 포트폴리오

- 국내외 혁신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결과, 과거 대비 보다 균형잡힌 투자자산을 보유하게 됨
- 지난해 PI 공정가치 평가에서는 약 6,020억원 이익을 반영
- 올해 1분기에만 8,040억원 평가이익을 인식. 주로 스페이스엑스의 대규모 이익 덕분, 2분기말 예상된 IPO 시 큰 폭의 추가 평가이익 기대되는 상황
- 향후 투자 선순환 확대를 위해 새로운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행 중
- 비상장주식뿐만 아니라 상장주식도 다수 포함. 상장주식 평가이익은 시가로 반영되어 8,040억원에 미포함
- 한국 메모리, 미국 반도체 밸류체인, 중국 AI 등 혁신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도 3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익 달성
- 작년말부터 미니맥스 등 홍콩 상장기업에 코너스톤 투자기회 확보, 1분기에만 1,558억원의 투자수익 거두었음
- 홍콩 상장기업의 코너스톤 투자기회는 미래에셋그룹이 자산운용사를 필두로 오랜 기간에 걸쳐 글로벌 진출을 꾀한 결과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과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

• 4. 글로벌 투자 플랫폼 구축 전략

- 기존 모건스탠리 모델의 자산관리 중심의 WM 비즈에서 로빈후드 디지털자산까지 아우르는 종합 투자플랫폼 비즈 모델을 글로벌하게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 중
- 로빈후드의 1분기말 기준 자산규모는 455억달러, 한화로 약 65조원. 당기순이익은 3.5억달러, 약 5,100억원
- 당사대비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 시총은 약 100조원, PBR 7.5배
- 당사 시총 약 44조원, PBR 3.3배 대비 훨씬 높은 밸류를 적용받고 있음
- 사업 구조 및 영위 지역 등에서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미래에셋증권이 전통 증권사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투자 플랫폼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핀테크 플랫폼 기반 증권사로서의 면모가 인정받게 될 경우 현재대비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판단
- 이를 구체화하는 첫번째 이정표로 26년 6월 홍콩을 시작으로 글로벌 MTS 순차적 출시 예정
- 이를 기반으로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의 추가적인 리레이팅 달성해나갈 것
- 현재 미국 시장에서 증권사 인수를 추진중. 보다 자세한 진행 경과와 인수가 확정되는대로 추후 시장과 소통할 것
- 미국은 리테일 WM AUM이 약 95조달러, 한화 기준 8.6경원으로 이 중 1% 점유율 확보시 약 5,900억달러, 약 855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
- 미국 증권사 인수를 통한 WM 시장 진출이 어려운 길이기도 하나,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작은 성과만 내도 국내 시장 대비 큰 성과 달성 가능
- 디지털 자산 거래가 확대되고 온라인 거래가 대세가 되는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전혀 불가능한 도전은 아님
- 최근 외국인 통합계좌 시행으로 인바운드 브로커리지, 즉 한국 증시로의 외인 자금 유입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, 홍콩 MTS 구축 및 미국 현지 증권사 인수는 신규 수익원 확보 측면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. 당사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으로 판단
- 미래에셋그룹은 24년 1월 전문성 있는 인력을 엄선해 AI 기반 자산운용 및 로보어드바이저 등 금융서비스 개발 법인인 웰스스팟을 설립. 웰스스팟은 국내에서 AI를 활용한 자산관리 서비스, 추진하고 있는 투자플랫폼 구축에 있어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

<브로커리지>

- 주식거래대금 상승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38% 증가한 4,594억원 기록
- 국내주식 수수료수익 전분기대비 72% 증가한 3408억원, 해외주식 수수료수익 전분기대비 11% 감소한 1,186억원 기록
- 국내주식 평균 수수료율은 전분기와 동일한 수준인 2.9bp, 해외주식 평균 수수료율은 전분기대비 2.2bp 상승한 14.9bp
- 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 전분기대비 120.6% 증가한 22.8조원 기록하며 큰 폭 증가
- 국내 및 해외주식 포함한 총 주식예탁자산 357.6조원 기록
- 이 중 해외주식 자산은 전분기대비 9% 감소한 47.5조원, 국내주식 자산은 전분기대비 22% 증가한 310.1조원
- 대고객 신용잔고는 전분기대비 유사한 수준인 6.9조원 기록. 실적 보고서상 이자손익에 반영되는 신용손익은 전분기대비 1% 감소한 912억원 기록
-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이 융합되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. 26년에는 MTS 및 M-STOCK 서비스를 순차적 개편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M-STOCK 3.0 전환을 추진 중
- 기존 디지털 플랫폼이 고객 접점 확보와 거래 편의성 중심이었다면, 앞으로는 거래시간 연장, 결제주기 단축 및 신규 디지털자산 도입 등 시장 변화에 대응해 고객 유입부터 투자거래, 자산관리, 상품판매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게 진화시킬 것
- 통합관리자산체제로 확장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자산조회 서비스인 My 자산을 리뉴얼해 고객의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
- 토큰증권의 경우 제도화 일정에 맞춰 사업 본격화할 수 있도록 내부 역량 확보와 외부 협력 활동을 병행, 사전준비 이행 중
- AI 챗봇을 리뉴얼해 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 지원과 개인화된 응대를 강화함으로써 고객의 M-STOCK 이용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것
- 시장 흐름과 개인화된 종목 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AI 데이터 기반 투자정보 및 콘텐츠를 M-STOCK 3.0 UI로 새롭게 제공할 예정
- M-STOCK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 연속 월간 순방문자수 MAU 1위 기록
- M-STOCK은 비즈니스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지속 포지셔닝해나갈 계획

<WM>

- 금융상품판매수수료수익 전분기대비 17% 증가한 1,125억원 기록
- 랩어카운트, 집합투자증권, 퇴직연금판매 관련 수수료수익은 각각 전체 WM 수익의 41%, 29%, 23% 차지하며 최대 실적 달성을 견인하는데 기여
- 금융상품고객자산은 전분기대비 6% 증가한 224조원
- 금융상품고객자산과 주식위탁자산의 합계인 총 고객자산은 전분기대비 12% 증가한 581.7조원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
- AI와 빅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진화 중.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와 PB 서비스를 결합한 전담조직 운영 중. 디지털 PB를 중심으로 비대면 온라인 고객 서비스 기반 또한 강화 중
- AI를 통해 제공되던 주요 국내외 투자정보 대상을 기존 주식 보유고객에서 ETF 투자자까지 확대할 계획
- 3월말 기준 연금자산은 64.3조원, 현재 기준으로 74조원을 돌파하며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
- DC, IRP 합산 적립금 규모 기준 전 금융권 1위 기록

<트레이딩 및 기타금융실적>

-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주식, 채권, 파생상품 등 전통 트레이딩과 S&T, 별도 PI에서 발생한 손익을 포함
- 자기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직접적 수익뿐 아니라 외환손익, IB에서 보유한 자산의 평가/처분손익도 해당 항목에 반영됨
- 전체 트레이딩 및 기타금융손익은 전분기대비 83% 증가한 4,050억원 기록
- 분배 및 배당금수익 1,115억원과 운용 및 기타금융손익 2,935억원을 포함한 수치
- 채권잔고는 전분기대비 2.7조원 증가한 42.3조원 기록
- 3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확대되며 국내외 채권금리는 큰 폭 상승. 이에 따라 채권 보유 포지션에 대한 헷지 비중을 확대하며 보수적 운용했으나, 1분기 기대했던 수준의 수익에는 미치지 못했음
- 높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손익 관리를 위해 보수적 운용 전략을 유지할 계획
- 1분기 ETF 거래량 증가와 시장 변동성 증대에 적극 대응하고, 국내외 신규 스왑 거래 상대방 및 LP 커버리지를 확장했음
- 홍콩에 신규 상장하는 글로벌 X ETF 시딩과 홍콩 IPO 차익거래 등 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익원 발굴
- ETF LP 및 트레이딩 알고리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고, 홍콩, 인도 등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외 IPO 및 파생상품 세일즈 기회를 확대해나가고 있음
- 6월 홍콩 현지법인에서의 디지털자산 플랫폼 출시와 함께 연계된 비즈니스 기회도 모색 중
- 거래시간 연장에 대비한 조직 및 시스템 정비도 병행
- 연결 PI 주요자산 공정가치 평가 결과
 - 1분기에는 혁신기업 등 공정가치 평가이익으로 약 8,040억원 반영
 - 혁신기업에 대한 PI 투자에는 상장주식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, 이는 공정가치 평가대상이 아니라 시가 평가대상인 관계로 8,040억원에 포함되어있지 않음
 - 한국 메모리, 미국 반도체 밸류체인, 중국 Si 등 혁신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서도 3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익을 달성
 - 미니맥스 등 홍콩 상장기업의 코너스톤 투자기회를 통해 올 1분기 1,558억원의 투자수익을 거둠

<IB>

- IB 수수료수익은 전분기대비 39% 감소한 260억원 기록
- 1분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딜 감소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실적이 감소했음
- 기업금융에서는 코스닥 상장 2건, 당사가 주관한 상장주식의 신주인수권 행사, 회사채 발행 대표주관 18건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
- IPO의 경우 2분기 내 4건의 코스닥 상장 목표
- 부동산PF 시장은 부실 정리 상당 부분 진행되며 단기 유동성 우려는 과거대비 완화되었으나, 구조적 리스크 잔존하고 있음
- 1분기 신규 우량 사업장 공급감소로 인해 딜소싱 기회가 다소 제한적이었으며, 신중한 기조 유지 중
- 실적보고서상 이자손익으로 분류되는 기업여신 수익은 전분기대비 2.3% 감소한 272억원 기록
- 당사는 감독당국이 올해 규정한 모험자본 규제비율 10%를 상회하는 16.4%를 1분기 내 조기 달성
- 앞으로도 IB 부문이 보유한 영업력을 기반으로 모험자본 공급과 연계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나갈 것

<해외법인>

- 해외법인은 세전이익 기준 전분기대비 22% 증가한 2,432억원 시현
- 해외법인이 차지하는 전체 연결 세전이익 비중은 약 18%
- 1분기 해외법인 순이익 기준 ROE는 14%, 사상 처음으로 ROE 두자릿수 달성
- 선진지역 내 일부 법인에서는 투자자산 성과가 반영되는 가운데 당사가 지난 수년간 집중해온 선진국 중심의 flow trading 비즈니스 또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며 경상이익 기반도 견고해지는 중
- 1분기 전체 해외법인 세전이익의 65% 수준인 1,570억원의 투자자산평가이익이 인식됨
- 주요 지역별 세전이익 비중은 미국 34%, 홍콩 33%, 인도 10%, 베트남 5%, 기타 18%로 구성됨
- Flow trading 및 PI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, 홍콩, 유럽 등 선진국의 세전이익 비중은 79%, BK 및 WM 중심 이머징 국가 비중은 21% 기록
- 1분기 글로벌 트레이딩 플랫폼 기반 확장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. 미국 내 flow trading 비즈 확장을 위해 설립된 글로벌 트레이딩 X는 브로커딜러 라이선스 취득하며 사업 기반 강화
- 영국의 GTX UK, GTX EU는 1분기동안 전년도 연간 세전이익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
- 홍콩에서는 국내증권사 최초로 6월 글로벌 MTS 출시를 앞둠. 통합 디지털 WM 플랫폼 구축을 점진적으로 진행해나갈 것

<자본정책 및 주주환원>

- 27년부터 향후 3개년 적용될 주주환원 정책과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실행 방안은 현재 다각도로 검토 중.
- 향후 구체적인 확정되는 대로 시장과 소통할 것

Q&A

1) 투자목적자산 관련 수익성과 투자 전략

- 투자목적자산이라고 분류하던 용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. 과거에는 펀드 형태 투자 비중이 높았고, 별도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연결 기준으로만 손익이 반영되는 자산들을 내부적으로 투자목적자산으로 분류했음. 당시에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 중심의 공정가치 평가자산 비중이 높았음
- 2022년부터 투자자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보다는 혁신기업 위주로 구성되기 시작했음. 혁신기업 투자는 상장, 비상장 기업이 모두 포함되며, 비상장기업은 기존 부동산 투자와 마찬가지로 펀드 형태로 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공정가치 평가대상 자산에 포함됨.
- 최근에는 혁신 상장기업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, 혁신기업과 관련해서 시장성 있는 투자자산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
- 1분기 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이익 8,040억원이 반영되었음. 또한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홍콩 상장기업 코너스톤 투자에서도 1분기에만 1,560억원 수준의 이익이 발생
- 혁신기업 투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스페이스엑스. 시장에서는 스페이스엑스 예상 시가총액을 1.75조달러~2조달러 수준으로 전망. 6월말에 1.75조달러 수준에서 상장될 경우, 약 1.3조원 규모 추가 평가이익 발생 가능
- 다만 혁신기업 투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자처럼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접근하기보다는, 구조적 산업 변화에 주목하면서 장기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투자 중.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국가·산업별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 병행 중.
-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 중심이며, 인도도 일부 검토 중. 산업별로는 AI, 반도체, 우주항공 등 구조적 성장 산업 중심으로 투자 확대 중.
- 또한 미래에셋그룹이 지난 20여년간 자산운용 사업을 통해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트랙레코드가 우량 투자기회 확보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음

2) 홍콩 통합 MTS 및 외국인 통합계좌 관련 전략

-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로 인해 해외 투자자의 국내주식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는 것으로 기대
- 과거에는 해외투자자가 국내증권사에서 직접 계좌를 개설해야 했지만, 이제는 현지 증권사를 통해서 간편하게 한국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됨
- 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익숙한 현지 계좌를 통해서 한국 주식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졌음
- 특히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높다고 평가됨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뿐 아니라, 한국이 중국 제외 시 반도체·조선·방산·전력인프라 등 제조업 기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으며, AI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
-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 투자 접근성이 제한되는 환경 감안 시, 한국 시장의 상대적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음. 이에 따라 인바운드 WM 브로커리지 및 외국인의 한국주식 투자 확대가 국내 증권사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
- 이런 측면에서 6월 예정된 홍콩 MTS 출시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미국 증권사 인수가 타사 대비 차별화된 경쟁력이 될 것으로 기대

3) 투자목적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및 비상장 투자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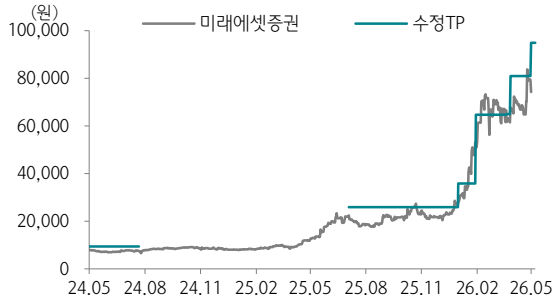
- 과거에는 대우증권 인수 후 투자 여력이 제한적이었고, 당시 글로벌 부동산 투자 붐 영향도 있었던 만큼 포트폴리오 내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구조였음. 이에 따라 23년도까지 관련 자산 손익 변동성이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
- 다만 최근에는 자기자본도 확충과 이익 증가로 투자 여력이 과거대비 크게 확대됐고,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량 혁신기업 투자 접근성도 개선됐음
- **현재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는 크게 △혁신기업 관련 자산 6조원 △대체투자자산(부동산·인프라 등 실물자산) 2조원 △IB·영업 관련 자산 4조원으로 구성**
- 혁신기업 자산 중 스페이스엑스 투자금액은 국내외 합산 기준 8천억원 수준. 다만 평가이익 반영 이후 현재 장부가 기준으로는 약 3.3조원 규모까지 확대된 상황
- 비상장기업 투자의 경우 NDA 이슈로 개별 투자금액 공개는 제한적
- **현재 상장기업 관련 자산은 평가금액 기준 약 6천억원 수준이며, 비상장기업 관련 자산 규모는 약 5조원 수준. 이 중 스페이스엑스 평가금액이 약 3.3조원을 차지하면서 비중이 크게 확대된 상황**

4) 스페이스엑스 외 추가 해외지분 투자 평가이익 관련 내용

- X, xAI, 스페이스엑스 세 기업에 투자했으며, 최근 합병 과정에서 전체 규모가 확대돼 보이는 측면이 있음
- 비상장기업 관련 평가이익 중에서는 스페이스엑스 비중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
- 퍼플렉시티도 투자되어 있으나 IPO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평가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움
- 상장주식 관련 평가이익은 현재 시장 분위기 감안 시 꽤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비상장기업 기준 스페이스엑스 외에 별도로 크게 언급할 만한 내용은 없음

투자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

미래에셋증권



날짜	투자의견	목표주가	괴리율	
			평균	최고/최저
26.5.13	BUY	95,000		
26.4.8	BUY	81,000	-12.60%	3.46%
26.2.10	BUY	64,719	1.25%	13.23%
26.1.12	BUY	35,845	4.95%	48.33%
25.7.15	BUY	25,888	-16.50%	10.38%
25.6.17	담당자 변경		-	-
24.2.7	BUY	9,459	-6.19%	109.16%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2026년 5월 1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%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고연수)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,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.
-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고연수)는 2026년 5월 1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 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의견 비율공시

- **투자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**
- **기업의 분류**
BUY(매수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% 이상 상승 여력
Neutral(중립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-15%~15% 등락
Reduce(비중축소)_목표주가가 현주가 대비 15% 이상 하락 가능
- **산업의 분류**
Overweight(비중확대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% 이상 상승 여력
Neutral(중립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-15%~15% 등락
Underweight(비중축소)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-15%~15% 등락

투자등급	BUY(매수)	Neutral(중립)	Reduce(매도)	합계
금융투자상품의 비율	96.86%	3.14%	0.00%	100%

* 기준일: 2026년 05월 09일